

[종합·국제]

현장과 시각

장성 주민소환사태의 진실



장필수

사회2부 차장

문항(文鄉) 장성군이 요즘 주민소환 문제로 시끄럽다. 지역내 일부 시민사 회단체가 중심이 된 '장성 군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주 장성군 선거관 리위원회에 장성군의회 의장 등 의원 4명에 대한 '주민소환 취지 및 이유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성군 선거위는 21일 "소환 청구인 대표자 자격 심사 등을 벌인 결과 하자 없는 만큼 빠르면 22일부터는 주민소환추진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활동에 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길이 멀다.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군선거위에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투표 발의 절차를 거쳐 실제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선거에 참가해 유효투표자의 절반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장성군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하남시, 경남 함양, 함안, 전북 전주에 이어 네번째로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장성군이 시끄러운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군수 재선거이후 잠재 패 손 집행부(군)와 군의회의 갈등이 주민소환 운동 동을 계기로 밖으로 표출됐을 뿐이다. 재선거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일색인 군의원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청 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이청 군수 승리로 끝났다.

이후 군수 취임식에 군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군의회가 군수 업무추진비와 농업예산 및 노인복지예산을 삭감하자 극단적인 대처 국면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농업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군의회가 사과성명을 냈지만 주민소환 운동을 막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선거 후유증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으면서 주민소환이란 갈 등으로 끊어 터진 것이다.

주민소환을 바라보는 군민들은 대체적으로 군의원들이 이같은 일을 자초했다는 데 이견은 없는 듯 하다. 그렇지만 군수도 이를 '즐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주민소환추진위의 구성과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태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다. 선거 후유증으로 갈갈이 찢긴 민심을 수습하는 책임은 군수와 군의원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카드들 다 써버린 군의원들보다 승자인 군수가 갈등의 실마리를 풀 실타래를 잡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bungy@kwangju.co.kr

한나라 '공천 대립' 심화

親朴 의원들 '최후의 카드' 탈당 첫 거론 압박

박근혜 전 대표계가 21일 일제히 탈당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한나라당 내 총선 공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계가 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을 공격해 왔지만 '최후의 카드'인 탈당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박 전 대표가 중국 특사 활동 보고를 결한 이 당선인과의 회동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박 전 대표를 수행해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유정복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넷에서 '총선 공천이 이명박계 의중대로 관철될 경우 탈당 외에 뾰족한 대응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전 대표 는 정당개혁, 정치발전의 중요한 요체로 공천문제를 보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정말 애써서 이룩한 한나라당의 현재의 정치개혁이나 정치발전이 매우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다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한 의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 가능성은 탈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으나 문자, 유 의원은 "지금 구체 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순 없겠으나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거듭 강력 시사했다.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이 이날 "공심 위 구성이 정말 불공정하고 승자독식의 구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박 전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탈당도 포함된다"면서 "다만 그런 것을 미리 전제할 필요는 없고, 공심 위를 제대로 구성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면 그럴 가능성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 측에서 어떤 식으로 든 박근혜계 제거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박근혜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정권 5년 동안 같은 당으로부터 견제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근혜계 원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박근혜 탈당'을 주문해왔다. 특히 이들이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하지만, 원내 인 사들은 탈당에 미온적이다. 공천에서 탈락한다면 모르나, 아직은 명분이 약하고 탈당 후 성공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탈당 얘기가 정거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5년 후 대권을 바라보는 박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5년 후 대권도전에 탈당이 유리할지, 괴물 더라도 남는 것이 유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 정치 일정상 박 전 대표가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BBK 특검' 서울시 실무자 첫 소환

DMC 특혜 분양 의혹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인 정호영 특별수사팀은 21일 오후 삼양동 DMC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를 불러 조사를 했다. '이명박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출석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씨는 삼양동 DMC 부지가 ㈜한독산학합동단지내 분양될 당시 DMC 담당관실 실무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서울시가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한독산학에 삼양동 부지를 분양한 경위, 매매계약 체결 상황, 오피스텔용 분양하는 것을 승인한 과정, 한독산학의 분양

조건 미준수에 대한 조치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동 DMC 사건의 핵심은 이 당선인이 시장이던 2002년 12월 통장 잔고가 100원도 안 됐던 ㈜한독산학 협력단지가 부지 9천490㎡를 특혜 분양받는 한편 거저 외자 유치 계획을 세워 서울시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민주 신당이 고발한 다른 서울시 공무원 3명도 차례로 불러 이들이 한독산학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특검팀은 한독산학 등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데대로 윤도 한독산학 대표 겸 학교법인 정진학원 이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오바마 "클린턴 부부 두 사람과의 대결"

'흑인 클린턴'이라 불리는 민주당 대선 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0일(현지 시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겨냥, 직격탄을 날리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21일 방영될 예정인 미 ABC의 시사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당내 최대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턴 부부 두 사람과 대결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기세를 올렸으나 8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19일 네바다 코커스에서 힐러리 의원에겐 연패를 당한 오바마는 그간 클린턴 부부의 네거티브 공세에 당했다. 오바마는 "빌은 부인을 대신해 민주당 경선 후보직에 오른 것 같다"면서 "이는

적잖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나친 유세 지원활동과 자신에 대한 비난공세를 역공했다. 그는 특히 클린턴이 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자신의 '변화와 희망' 메시지를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통쾌한 현실감 없는 얘기"라고 몰아붙인 것 등을 염두에 둔 듯 "빌은 계속해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을 내뱉고 있다"고 공격했다. 나아가 "빌은 이라크전에 관한 나의 반대 기록이건, 라스베이거스의 노조 조직의 지지선언이건 구분하지 않고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고 역공했다. 오바마는 이어 "이런 공세는 아예 습관성이 돼 버렸다"면서 "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세를 취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캠프의 일상사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오바마, 老心 잡지 못해 힐러리에 패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승2패를 기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뒤진 이유는 노심(老心)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CBS 뉴스가 19일(현지 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오바마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첫 승을 따냈지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내리 힐러리에 석패, 쓴맛을 봤다. 특히 근소한 격차의 패배에 비해 오바마가 노년층의 표심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것이 패

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실제 오바마는 노년층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65세 이상의 유권자에게 48%의 지지를 받은 반면 오바마는 32%에 그쳤다. 네바다주에서도 힐러리가 60대 이상에게 무려 60%의 지지를 받아 31%에 그친 오바마를 압도했다. 심지어 오바마가 승리한 아이오와에서도 힐러리는 65세 이상에서 45%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오바마는 18%의 지지만을 받았을 뿐이다. /연합뉴스

삼성특검, 용인 에버랜드 창고 압수수색

미술품 보관 첩보 입수 삼성증 시장 소환조사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이 21일 오후 고가의 미술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창고 입구를 에버랜드 관계자들이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이 21일 경기도 용인 소재 용인공원 에버랜드에 소재한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창고가 보통의 용도와 달리 고가의 미술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후 4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차량 두 대에 태워 보내 현장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창고는 삼성화재 부설 맹인 안 내건 학교 뒤에 위치해 있으며, 맹인 안 내건이나 사교 구조 등 사육 장소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고가 미술품이 보관됐다는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에 따라 이견 회 회장 일가가 비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들을 구입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배호원(58) 삼성증권 사장을 참

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배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한남동 특검 회 회장 일가가 비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들을 구입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배호원(58) 삼성증권 사장을 참

부사장 등을 거친 뒤 2004년부터 삼성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학수 부 회장(전략기획실장)과 전략기획실 소속인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전용배 상무 등과 함께 비자금 조성·관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영광 법성포 굴비' (Yeonggwang Byeongsopo Gulbi).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products and lists prices such as 150,000, 100,000, and 70,000. The text emphasizes '구정맞이 직송판매' (Direct shipping for the Korean New Year festival) and provides a phone number: 061-356-7600.

Advertisement for '소비자 만족도 1위' (Consumer Satisfaction #1) by '무등산업' (Mudeung Industry).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household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washing machines. The text highlights the company's commitment to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providing a phone number: 011-601-7701.